

## 충남도정 선도 정책연구에 앞장

8일, 김용웅 충남발전연구원장 퇴임



김용웅 충남발전연구원장(67)이 지난 6년간 정들었던 연구원을 떠났다. 이에 충발연은 임기가 만료되는 7월 8일 오전 11시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김용웅 원장 퇴임식을 가졌다.

충남 논산 출신으로 영국 셰필드대학에서 도시및지역계획학 박사학위를 받은 김 원장은 국토연구원 부원장과 안양대학교 교수를 역임하다 2004년 7월 제5대 충남발전연구원장으로 취임하였고, 합리적 연구능력과 효율적 조직 경영을 인정받아 제6대 원장까지 연임하였다.

재임중 김 원장은 연구원 독립청사 확보 및 자율과 책임이라는 조직 운영을 통해 열악했던 연구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였고, 객원연구위원제도 도입과 외부전문가와의 협동연구 활성화로 부족한 연구인력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코칭과 자문을 통한 고객 정책지원으로 보다 양질의 연구성과를 만들어내는 등 충남도정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역량 강화에 많은 열정을 쏟아부었다.

이로 인해 2006년부터 행안부 주관 전국 시도연구원 경영평가에서 3년 연속, 충남도 주관

산하기관 평가에서는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무엇보다 김 원장은 세종시의 올바른 추진과 국방대 논산 이전, 도청이전신도시, 수도권규제완화 등 균형있는 지역발전정책 수립에 크게 이바지했다는 평을 듣고 있다.

퇴임하는 김용웅 원장은 “6년간 몸담았던 연구원을 떠나면서 그동안 부족했던 점들이 떠올라 많은 아쉬움이 남지만 그런 나를 믿고 함께 노력해준 모든 연구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계속 그래왔듯이 충남의 발전이 곧 연구원의 미래임을 잊지 말고 모든 도정연구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 원장의 주요 저서로는 「세계화와 지역발전」(한울아카데미, 2001), 「지역발전론」(한울아카데미, 2003), 「新지역발전론」(한울아카데미, 2009) 등이 있으며, 지역개발 정책연구를 중심으로 국·영문논문 80여편을 집필했다.

## 올여름 휴가는 충남 서해안으로!

- 쾌적하고 안전한 피서지, 테마가 있는 해수욕장 조성



충남도는 올여름 피서철을 앞두고 도내 서해안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의 안전과 편안한 휴식을 위해 「여름철 해수욕장 종합관리·운영대책」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도는 8월 19일까지 변영회·유관기관 등과 해수욕장별로 “종합안내소”를 설치하여 미아보호, 교통·행락질서제도 등 종합민원처리센터로 운영하며, ▲이동화장실 증설 및 신속 수거 ▲음식점 등 민간업소 화장실 개방 ▲교통안내 유도판 설치 ▲역·터미널 관광안내소 설치 ▲바가지요금 안받기 ▲부당요금 신고센터 운영 ▲119구조대 및 인명구조대 운영 등 각종 분야별 편의시설을 정비한다.

특히, 대천(머드 마사지), 무창포(신비의 바닷길), 춘장대(해송), 신두리(태안환경대축제) 등과 해수욕장을 대표하는 전설, 음식, 꽃(동백, 해당화) 등을 활용해 욕장별 대표적 이미지를 부각하여 테마가 있는 해수욕장을 조성하여 홍보할 방침이다.

또, 관광협회·번영회와 공동으로 노래자랑, 콘서트, 영화제, 해변 가요제, 비치발리볼, 해변축구, 윈드서핑, 레포츠 대회 개최와 조개잡이, 모래찜질 등의 체험 이벤트 유치와 주민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시·군 농협 등과 협조 하여 지역 농·축·수산물 특산물판매장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위생 접객업소 종사자 교육 및 특별위생 점검과 1일 1회 이상 방역소독, 이동진료소 설치·운영 등으로 피서객들의 건강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나갈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올해는 2010대충청방문의 해를 맞아 가장 많은 관광객이 충남을 찾을 것으로 전망, 대천·무창포·춘장대·만리포 등 4개 해수욕장에 대해서는 지난 11일 준비상황을 점검하였고, 기타 도내 다른 해수욕장에 대해서는 16일까지 자체 점검토록 하여 피서객들이 편안한 여름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쾌적하고 안전한 피서지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2010세계대백제전 개최분위기 달아 오른다

- 한·중·일 참여 명품 역사테마축제 본격 카운트다운

### □ ‘백제, 세계를 만나다’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2010세계대백제전. 1,400여 년 전 한반도 고대국가 중 최강의 문화와 국력을 자랑했던 옛 백제의 화려한 부활을 꿈꾸는 아시아대표역사문화축제 개최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고 있다.

- 또한 15~64세의 생산가능 농가인구는 2005년 35만8천명에서 2020년 15만7천명으로 감소하고, 20~49세의 핵심 농업인력도 12만3천명에서 7만8천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분석되는 등 고령층이 증가하고 젊은층이 감소하는 역피라미드 인구구조로 변화할 것으로 예측했다.
- ‘1400년 전 대백제의 부활’을 주제로 충남 부여군 규암면 백제역사문화단지와 공주시 고마나루 일원에서 장장 한 달간 펼쳐질 ‘2010세계대백제전’은 9월 17일 개막식에 이어 이튿날부터 공식 개장에 들어갈 예정.
- 6월 10일이 개막 D-100일. 충남도와 2010세계대백제전 조직위원회(위원장 최석원)는 이번 행사를 전 세계인이 주목하는 세계적 명품 축제로 만들기 위해 세부 행사 준비에 박차를 가해 나가고 있다.
- 이미 5월까지 행사장조성 실시계획을 확정하고 세부적인 준비체제로 전환한 조직위. 코리아를 넘어 아시아 대표 역사문화축제로 만들기 위한 야심에 찬 구상중.
- 「2010대충청방문의 해」의 중심 테마로 자리한 대백제전 준비 현장은 초여름 이른 더위에도 아랑곳없이 분주하다. 백제왕궁 주변 행사장은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고 있다. 이달부터 본격화한 입장권 예매와 함께 전반적인 행사 개최분위기 조성에 나선다는 계획.

## 전국 최대 역사문화축제 코 앞으로...

□ 2010세계대백제전의 모태는 백제문화제. 지금의 백제문화제는 지난 1955년 충남 부여에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아 부소산성에서 제단을 만들고 백제 3충신(성충, 흥수, 계백) 추모제를 올리면서 시작.

○ 지난 1966년에는 공주에서 백제 4대왕 추모제를 시작으로 부여군과 별개로 문화제가 개최되기 시작했고, 1979년부터는 양 시군이 윤번제로 개최, 축제의 형태로 발전.

□ 총 관람객 260만명(외국인 20만명 포함) 유치를 목표로 추진되는 이번 대백제전은 ‘발견’ ‘교류’ ‘창조’ 테마 아래, 전기백제시대라 할 한성백제는 물론, 익산, 영암, 미추홀 등을 아우르고 한반도를 넘어 일본과 중국으로까지 지경을 넓히는 작업에 한창.

○ 여기에서, 백제 콘텐츠를 세계적 보편성을 갖는 콘텐츠로 개발하는 한편 단순 소비성 축제에서 생산성 있는 주민 참여형 축제로 전환해 치르겠다는 것이 행사 주최 측의 방침.

○ 백제문화단지를 중심으로 조성중인 아시아 최고의 역사테마파크는 부여군 규암면 합정리 일원 329만4천㎡에 오는 2013년까지 총사업비 6776억원을 들여 호텔형 콘도, 18홀 골프장, 명품 아울렛, 스파랜드, 쇼핑센터 등을 갖추게 되며, 총 322실의 호텔형 콘도는 7월 말까지 내부 인테리어와 조경 공사를 모두 마치고 8월 하순께 개장 예정.

## 금강 수놓을 명품 축제, 주요 프로그램은...

□ 백제의 고도인 공주와 부여를 금강이라는 소통과 번영의 물길로 연결,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상상 이상의 축제’를 선보일 계획.

– 국비 30억원등 총 2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이번 행사에는 22개의 대형 프로그램과 70개 시군 프로그램들로 구성.

- 공주 고마나루에 전해지는 금강 설화와 백제시대 영웅을 소재로 한 판타지 ‘사마이야기’와 부여 금동대향로 등 백제의 문화유산을 이미지화 한 수상 미디어 퍼포먼스 ‘사비미르’는 이번 행사 최대 하이라이트. - 200여명의 전문 배우들이 총 출동해 펼치는 역동적인 대서사극은 관람객들을 화려했던 백제시대로 이끈다.
- 의자와왕과 삼천궁녀 이야기가 슬프고도 흥미롭게 되살아나는가 하면 해양 교류왕국 백제의 웅장함이 새롭게 부각된다.
- 또한 △소실된 백제유물을 디지털 기술로 복원하는 ‘백제유물유적 복원전’ △세계역사도시연맹 회원국들의 역사문화를 비교 및 체험하는 ‘세계역사도시 전시전’ 운영 △국내외 문화재급 백제유물 150여점을 전시하는 ‘백제유물 특별기획전’ 등이 함께 마련된다.
- 이와 함께 백제문화를 재발견하고, 백제인의 생활을 온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백제시대 일상 재현, 공연, 이벤트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웅진성의 하루, 사비성의 하루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개최된다.
- 충남 16개 시군이 참여하는 제례, 불전, 민속, 퍼레이드 등 전통민속 공연과 한성백제문화제, 영암 왕인축제 등 타 지역 백제문화축제의 주요 프로그램과 세계역사도시연맹 20개 회원도시와 백제교류국이 참여하는 해외공연도 만난다.
- ‘교류왕국 대백제’의 번영과 평화를 표현한 ‘퍼레이드’와 123필의 말과 100명의 병사가 백제인의 웅장한 기상을 표현하는 ‘대백제기마군단행렬’, 백제군 5천명이 신라군 5만명과 대결했던 ‘황산벌 전투 재현’ 등 기존 백제문화제의 주요 프로그램들이 대폭 업그레이드된다.
- 특히 행사 기간 동안에는 백제사전문가, 도시학자, 축제전문가 등 10여개국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국제학술대회가 열려 백제사를 재조명하게 된다..

경제적 파급효과 2400억원, 직접 고용효과 657명

□ 「2010세계대백제전」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때 얼마나 될까. 대백제전의 파급효과를 일일이 계산하는 것은 어렵지만 콘텐츠와 프로그램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24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 구체적으로 「2010세계대백제전」 개최를 통해 지역 내 인프라가 정비되거나 확충되면서 관광 수요 여건이 크게 개선되는 효과 가능.
- 특히 백제문화 콘텐츠의 재발견 및 창조를 통해 얻는 사회문화적 파급효과는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울 정도.

□ 오악사 백제음원 복원 등 음악, 공연, 영상, 시각예술물 등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대백제전 이후에도 계속해서 파급효과가 발생.

- 더불어 도시 인프라 확충 및 개발 효과를 극대화 해 백제문화단지, 축제예술마당 인프라 확충, 고마나루·낙화암 재생사업, 숙박시설 개선 등 공주와 부여의 도시개발, 관광 인프라 구축에 크게 기여.
- 「2010세계대백제전」을 통해 얻어지는 경제적 파급효과도 중요하지만 이 행사를 통해 지역민들의 문화의식과 자긍심 고양은 물론 충청 전 지역을 묶는 화합의 장이 조성된다는 의미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부분.
- 특히, 개막이 임박해오면서부터는 각종 국내외 온오프라인 홍보를 극대화하고, 관람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행사장 운영, 교통, 숙박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할 계획.

□ 조직위 이성우 사무총장은 “고대국가 당시 백제 예술이 아시아 최고였듯 올해 세계대백제전으로 치르는 백제문화제를 아시아 최고의 문화예술축제로 이끌겠다”며 야심찬 의지를 밝힘.



## 「충남문화산업발전위원회」 발족

- 산·학·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 문화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특화산업 발전육성

충남문화산업을 이끌어 갈 ‘충남문화산업발전위원회’가 구성됐다.

충남도는 6월 4일(금) 오전 리베라 호텔(대전 유성구 소재)에서 도내 문화산업 관련 대학교수, 기업 대표, 유관기관 연구원 등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충남문화산업발전위원회 발족식을 가졌다.

문화산업위원회는 산·학·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으로 충남문화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체계적 지원으로 지역특화산업 발전육성을 위해 한서대 김한성 교수 등 총 22명의 위원(분과별 7~8명/임기 2년)으로 구성됐다.

우선, 금년도는 총 3개 분과(총괄분과 제외)를 시작으로 ▲지역문화산업 동향조사 및 정보수집·분석,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정보기술분과 ▲융합형 콘텐츠 산업발전 및 시너지 창출모델 개발, 중앙정부 지원과제와 연계 및 OSMU(One Source Multi Use) 촉진연구 및 개발을 위한 OSMU포럼분과 ▲광역·기초지자체의 현안과제 연구개발 및 대학연계로 문화산업 정책 및 사업화 과제발굴을 위한 지역균형발전분과로 운영되며, 2012년까지 산업기반분과와 산업활성화분과 등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앞으로 지역과 지역 내 기업들에게 필요한 특별연구과제와 결과 도출을 위한 분과회의 개최(4회), 통합세미나(2회), 공청회 등을 개최해 운영할 계획이며, 신규사업 아이디어 발굴 및 특별연구과제 부여 등 실질적인 위원회 운영으로 문화산업의 21C 고부가가치 창출로 지역 경쟁력 강화와 지역특화산업 발전을 견인한다는 방침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충남문화산업발전위원회 발족을 통해 산·학·연·관 협력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충남 문화산업 발전의 초석을 마련하여 공동협력을 통해 충청권 종합발전 구상 및 지역혁신 발전 시행계획 등과 연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충남, 6.2 지방선거 이후 지역화합 및 통합대책 마련

-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지역화합 · 협력분위기 조성 등 -

충남도는 6.2 지방선거로 흐트러진 사회분위기를 쇄신하고 지역내 화합 및 공직기강을 확립하고자 「6.2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지역화합 및 통합대책」을 마련, 민선5기 출범준비 등 지역사회 안정 및 민생보호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선거분위기 일소 및 지역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입후보자 선거벽보 공고 · 안내문 등을 조기 제거하고 공직자의 기존 「선거관리체제」를 본연의 「봉사행정체제」로 신속히 전환 하는 한편, 무사안일한 근무행태, 불법행위 방치 등 공직기강 해이 사례 척결을 위해 도, 시 · 군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하는 「공직기강확립 점검반」을 통해 상시 감찰활동을 전개한다.

또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위해 선거결과를 반영한 특혜 · 좌천인사라는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투명한 인사원칙을 마련 · 시행하고 불합리한 인사전행에 대한 특별감찰활동을 전개한다.

또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무리한 지방채 발행지양, 감채기금 적립확대 등 지방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사회질서 및 기강확립을 위해 기초생활 질서 생활화 및 엄격한 법집행과 지역안정을 저해하는 집단민원도 적극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민선4기의 안정적 마무리 및 민선5기의 성공적 출범을 위해 당선자가 취임 전에 주요업무 · 현안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책구상을 하는데 필요한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등 정확한 사무 인계 · 인수를 통해 책임한계를 분명히 하고 행정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토록 할 방침이다.

박윤근 道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지역화합 및 통합대책 추진을 통하여 자치단체장의 공백으로 인한 염려를 불식하고, 빈틈없는 업무추진과 준비로 민선5기가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금산세계인삼엑스포」 내년 9월 2일부터 32일간 열려

— 道 용역보고회/ 엑스포 개최방향, 규모 등 모습 드러내



2011 금산세계인삼엑스포가 9월 2일부터 32일간의 일정으로 잠정 결정됨에 따라 엑스포의 윤곽이 구체화 되어가고 있다.

충남도는 5월 18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이인화 도지사 권한대행 주재로 양창엽 금산군수 권한대행, 정강환 배재대 교수 등 관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1금산세계인삼엑스포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2차 중간보고회를 갖고 관계실무 협의를 거쳤다.

이날 발표된 2011 금산세계인삼엑스포 기본계획에 따르면 ▲엑스포 성격은 산업전문박람회로 하되 건강과 웰빙 개념을 도입하고 ▲명칭(금산세계인삼엑스포) ▲주제(생명의 뿌리 인삼) ▲개최 장소(인삼유통센터) ▲엑스포 상징(표상)은 2006 인삼엑스포와 맥을 같이 함으로써 기존에 형성된 인지도와 이미지를 계승하여 신규 투자의 최소화는 물론 홍보시너지 효과를 이끌어 낸다는 전략이다.

또 ▲개최 기간은 2011년 9월 12일이 추석인 점을 고려하여 9월 2일부터 10월 3일까지 32일간(2006 대비 8일 연장)개최함으로써 연휴 효과를 반영하고 ▲행사장은 인삼유통센터 중심

으로 산업박람회의 성격에 부합되도록 '주제관, 산업관, 금산인삼관, 인삼 음식관, 웰빙 체험관' 등 5개 존(Zone)으로 구성하여 교역과 국제행사의 비중을 높이도록 하였다.

이번 엑스포에는 총 135억원(2006년 13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며, 재원은 국비가 30억원, 도비가 52억 5천만원, 금산군비가 52억 5천만원이다.

「2011금산세계인삼엑스포」는 국내 인삼 재배면적의 증가로 인삼가격이 하락하는 등 인삼시장이 크게 위축됨에 따라 새로운 수요와 시장 창출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고려인삼 산업의 중추지로서 충남의 위상을 공고히 해야 한다는 충남도의 정책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이번 인삼엑스포를 통하여 한국 인삼산업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충남도, 도서종합개발사업 우수기관 선정

-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올해 사업 60억원 11개 도서 실시

충남도가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한 도서종합개발사업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충남도는 도서민 생활안정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도내 낙후된 도서(25개소)를 중점 개발, 제3차 도서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개년간 총사업비 594억원을 투자하는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우수기관 선정은 충남도의 적극적인 개발사업의 추진과 그간의 성과를 인정받은 것으로, 도는 도내지역의 도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계획에서 실행단계까지 도서 주민에 의견을 수렴하고 존중하여 사업의 투명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한편, 현장방문 확인을 통하여 사업의 중복투자를 사전에 차단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대상사업 선정시 우선순위의 적용과 사업간 연계강화로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한 점 등을 높게 평가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는 금년에도 도서종합개발사업으로 도내 11개 도서에 60억원을 지원하여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한다.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보령시 원산도 주차장시설과 녹도 해안경관도로 건설 등 9건에 46억2,100만원 ▲서산시 고파도 다목적회관건립으로 3억원 ▲서천군 유부도 도로 확·포장사업에 1억1,500만원 ▲홍성군 죽도 방파제시설공사로 1억3,900만원 ▲태안군 가의도 방파제시설공사에 2억9,900만원 ▲당진군 대난지도 환경위생시설에 5억2,600만원 등을 추진, 이 도서별 지원사업이 완료되면 도서민의 삶의 질이 한층 더 높아지고 도서 환경도 크게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충남도는 앞으로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금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각종 도서종합개발사업을 조기에 발주하여 연내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도서주민의 생활환경 개선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서지역의 미흡한 기반시설 정비 및 관광객 편의시설 등도 찾아서 개선하는 한편, 관광자원 개발에도 관심을 기울여 주민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충남도 대표 우수 브랜드쌀 7종 선정

－ 농림식품부에 추천, 전국평가에서 다수입상 추진

충남도는 4월 26일 도를 대표하는 우수브랜드쌀 7종을 선정, 전국 품평회에 추천한다고 밝혔다.

충남도는 브랜드쌀의 지속적인 품질관리 및 상품차별화로 충남쌀의 품질고급화를 유도하고, 전국 브랜드쌀 평가에 대비한 도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우수브랜드 쌀을 선정한 것이다.

이번 브랜드쌀 자체평가는 시군에서 추천한 9개 브랜드를 대상으로 쌀 품위·품질(400점), 서류 및 현장평가(100점)를 종합하여 높은 점수를 받은 7종의 쌀 브랜드를 선정하였다

특히 1위를 차지한 아산 맑은쌀은 품종순도, 기계적식미치, GAP시설인증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2위는 3년 연속(07~09)전국 브랜드쌀 평가에서 입상한 서산시 대산농협RPC의 ‘뜸부기와함께자란쌀’ 이 차지하였다

### ◇ 충남우수브랜드쌀 평가결과 선정된 7개 우수브랜드 ◇

- 1위 : 아산 둔포농협 ‘아산맑은쌀’
- 2위 : 서산 대산농협 ‘뜸부기와함께자란쌀’
- 3위 : 당진 먼천농협 ‘해나루쌀’
- 4위 : 천안 성환농협 ‘홍타령쌀’
- 5위 : 예산 예산통합 ‘미황’
- 6위 : 태안 원북농협 ‘황금빛노을쌀’
- 7위 : 공주 공주통합 ‘고맛나루쌀’

이번에 선정된 7종의 우수 브랜드 쌀은 수도권 시외버스 광고와 쌀 홍보·관촉행사 참가, 미곡종합처리장의 시설현대화사업비 우선 지원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지며, 농림식품부에 5월중 추천하여 전국 브랜드쌀 평가에서 입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국 평가 대비 입상전략회의를 도, 시군, 농협, RPC대표들과 5월말 개최하고, 평가기간중 출하쌀에 대한 품질분석을 사전 실시 후 매장에 출하토록 관리하고, 매장의 유통기간이 지난 쌀을 교체하는 등 충남의 우수브랜드쌀이 다수 입상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우리 도의 우수 브랜드쌀은 품질이 우수한 만큼 전국에서도 경쟁력이 있다”며, “전국 쌀 평가에서 입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충남도, 2012년까지 사회적 일자리 1,000개 창출

- 오는 2012년까지 100개 기업 1,000개 일자리 창출, 130억 투자
- 올해 25개 사회적 기업 육성, 250개 일자리

오는 2012년까지 충남 도내에는 모두 100개의 사회적 기업이 육성된다.

충남도는 취약계층에게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서비스의 확대를 위해 오는 2012년까지 130억원을 투입, 모두 100개의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여 1,000개의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최근 마련한 사회적 기업 3개년 육성 계획에 따라 현재 충남 도내 사회적 기업은 5개, 예비 사회적 기업은 25개로 총 50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져 있지만, 취약계층의 안정적 일자리 제공 필요성 및 지역의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연차적으로 '10년 25개(일자리 250개), '11년 35개(일자리 375개), '12년 35개(일자리 375개) 등 총100개의 사회적 기업(일자리 1,000개)을 육성 목표로 설정하여 추진키로 했다.

우선, 1차 연도인 올해는 예비 사회적 기업에서 15개, 신규사업 분야에서 10개를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을 기반으로 정착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농·특산물 생산·가공·유통분야, 자원 재활용 등 발전가능성이 있는 지역 친화적인 사업 분야를 우선 발굴 육성하고, 소명의식과 경영능력을 겸비한 혁신적인 사회적 기업가 육성도 병행 추진한다.

아울러 사회적 기업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고 맞춤형 지원을 위하여 민간 전문가, 시민, NGO 등이 참여하는 전문 지원기구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등 인프라를 구축하여 사회적 기업 지원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충남도 권희태 경제산업국장은 “사회적 기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소비자 단체 등 비영리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확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사회적 기업을 통하여 취약계층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서비스가 확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충남 문화예술교육 활동가 현황 한 눈에 본다

— 문화예술교육 활동가 네트워크 지도 발간

충남 도내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교육자들의 현황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됐다.

충남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센터장 안수영)에서는 충남 도내 16개 시·군의 문화예술교육 활동가들의 현황을 한 눈에 쉽게 볼 수 있도록 ‘인물 네트워크 지도’를 발간하고 4월 13일 발간회를 가졌다. 이 지도에는 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 관련 박물관 학예사, 예술단체 대표자 및 실무자, 기획자 등 총 62명을 문화예술교육 활동가로 선정하여 수록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문화예술교육 활동에 열정적이며, 각종 문화예술교육 기획과 프로젝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인물로 구성되어 있다.

충남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금년 문화예술교육 활동가 네트워크 지도 제작을 시작으로 앞으로 더 많은 다양한 분야의 인물을 발굴하여 차년도에는 보다 촘촘한 인력 네트워크 지도를 작성할 계획이다. 이 지도는 충남의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한 인적자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문화예술교육 인력간의 소통과 교류의 물꼬를 텃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충남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서는 지역문화예술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들 활동가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구심점으로써의 역할을 할 계획이다.

4월 13일 온양민속박물관에서 열리는 문화예술교육 활동가 네트워크 지도 발간회 및 워크숍에는 충남도의 문화예술교육 활동가 및 관계자, 문화예술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은 누구든지 참석 가능하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초청공연으로는 장우진 작가와 함께하는 유럽 왕실의 움직임은 장난감에서 유래된 ‘오토마타 공연’이 펼쳐져 새로운 문화예술교육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다. 또한, ‘우리지역 문화예술교육으로 꿈꾸기’라는 주제로 지역문화예술교육의 현황과 발전과제에 대해서 토론하고 발전방향을 공유하는 토론회도 갖는다.

한편, 충남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041-592-2277~8)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충청남도의 지원을 받아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주관하고 있다.



## 충발연 개원 15주년 기념 세미나... 지역 '싱크탱크', 경쟁력 확보 방안 모색



충남발전연구원(원장 김용웅)은 6월 18일 오전 10시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학계, 타 시도연구원 등 연구기관, 언론사, 연구자문위원, 그리고 도 및 연구원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경쟁력과 싱크탱크”라는 주제로 개원 15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충발연 김용웅 원장은 “개원 15주년을 맞는 연구원의 위상과 역할을 다시 한 번 점검해볼 수 있는 소중한 자리”라고 언급하면서 “이제 곧 출발할 민선 5기 충청남도정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신뢰성 높은 양질의 연구”를 당부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국토연구원 김영표 선임연구위원은 국내외 주요 싱크탱크의 기능과 역할을 소개하면서 “연구기관의 지속적인 발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연구주제 및 방법 등 연구의 질적 향상, ▲안정된 재원 마련과 이념적 중립성 등 연구의 독립성 확보, ▲보고서 확산 및 홍보 활성화를 통한 연구성과의 영향력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대전발전연구원 문경원 기획조정실장은 전국 15개 시도연구원의 연구사업 현황(07~09)을 분석하면서 “조직 규모에 따라 일부 차이는 보였으나 전체적으로 연구사업 추진 건수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또한 “각 연구원의 올해 평균 연구인력은 수도권 지역 52명, 기타 지역 24명이었고, 평균 예산은 수도권 지역 146억원, 기타 지역 59억원으로 수도권 연구원들의 인력과 재정 현황이 타 지역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고 언급했다.

이에 문 실장은 “시도연구원의 지역간 차이는 각 지역의 특성과 연구원의 운영역량은 물론 각 지자체의 연구원에 대한 관심 및 지원 정도를 드러내는 대목”이라면서도 “▲지역 밀착형 정책연구 역량 극대화, ▲안정적 재정보호를 위한 연구용역 활성화, ▲연구원 운영의 합리성과 근무여건 개선, ▲산·학·관 협력네트워크 강화 등 연구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자구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1995년 6월 충남도정의 정책개발과 종합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충남발전연구원은 개원 당시 11명, 4억원의 예산으로 시작하여 2009년도에는 80명, 76억원의 예산을 지출했다. 또한 연구직 1인당 연구실적은 7.8건으로 전국시도연구원 평균 3건보다 2.6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연구수요의 적정 안배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 충남발전연구 정옥식 박사, 2년 연속 세계3대인명사전 모두 등재



충남발전연구원 환경생태연구부 정옥식 박사(39세, 사진)가 세계 3대 인명사전인 ‘마르퀴즈 후즈 후(Marquis Who’s Who)’ 2011년판과 미국인명연구소(ABI)의 ‘2010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인물(2010 Man of The Year Korea)’로 선정되었다고 통보를 받았다. 또한 영국국제인명센터(IBC)에서 선정하는 ‘2천명의 뛰어난 과학자(2000 outstanding scientist)’에도 선정되었다.

이로써 정 박사는 2년 연속 세계 3대 인명사전에 모두 등재되는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한 셈이다.

연구원에서도 ‘새 박사’로 알려진 정옥식 박사는 경남 진주 출신으로 경희대 생물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고, 멸종위기 조류인 독수리의 이동 생태에 관한 연구와 도요새의 국제적 이동과 관련한 새로운 연구 방법론을 제기했으며, 해외 연구자들과의 지속적인 교류와 그간의 연구업적을 인정받아 이번 세계 3대 인명사전에 등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 충남발전연구, 올바른 저작권 이해와 활용 특강 가져



충남발전연구원(원장 김용웅, CDI)은 5월 31일 오전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충발연 전 직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전문 강사인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철남 교수를 초청하여 “지적재산권의 이해와 올바른 활용방안”이란 주제로 특강 교육을 가졌다.

이 교수는 다양한 저작권 침해 논란 사례들을 소개하면서 “저작권은 법적·도덕적 침해의 이중적 잣대가 적용되는 사례별 특수성이 중요한 변수”라면서 “특히, 공공기관에서 신문 기사를 무단 스크랩하여 홈페이지로 제공하거나 타인의 연구보고서에 대한 출처없이 사용하는 등 저작자의 창작물에 대한 올바른 의식없이 무심코 사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 소송을 비롯한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며 저작권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의 전환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충발연 김용웅 원장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연구보고서들은 연구원의 특성화된 콘텐츠라는 인식과 함께 그 콘텐츠가 잘 활용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특강을 계기로 모든 연구원들도 저작권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법적·도덕적 침해의 소지가 없도록 매사 연구 수행에 주의”를 당부했다.

## “충청 미래 건설 국비지원 필수”

— 충남도청 신도시 심포지엄 · 충남지사 후보 토론회



충남도청 신도시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선 도청신청사 신축비 등의 국비 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 및 학계 전문가들에 의해 한목소리로 제기됐다. 또 세종시 수정안 추진이 도청신도시 발전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해선 안 되며 이와 관련해 다양한 정책 과제가 모색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대전일보사 창간 60주년을 기념해 5월 17일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충남도청 신도시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심포지엄’에선 도청신도시의 국비 확보 및 분양 촉진 방안에 대해 중앙 및 지역 정치권과 각계 전문가 등의 견해가 집중 제기돼 주목을 받았다.

충청향우회중앙회가 공동 주최하고 충남발전연구원이 주관한 심포지엄에는 신수용 대전일보 사장,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 고흥길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박병석 민주당 의원, 자유선진당의 이재선·이명수·박선영 의원, 곽정현 충청향우회중앙회 총재, 이인화 충남지사 권한대행, 이완수 홍성군수 권한대행, 최운현 예산군수 권한대행, 김광배 충남개발공사 사장과 충청향우회 회원, 홍성·예산지역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하는 성황을 이뤘다.

소진광 경원대 교수는 ‘충청의 미래와 도청신도시의 위상 및 역할’을 주제로 발표에 나서 “도청신도시는 충남의 상징을 생산하고 정체성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도청신도시의 성공을 위한 중앙정부의 역할강화 방안’을 공동 발표한 고남중 충남도의회 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장과 조봉운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은 “전남도청의 국비 지원 사례를 감안해 충남도청사 신축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돼야 한다”며 “진입도로, 생태하천 복원, 신재생에너지 시설, 자전거도로 등의 지원도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두범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은 ‘도청이전 신도시 성공적 조성 및 분양 추진방안’을 통해 “분양 추진을 위해선 국제학교와 대학, 고급병원, 쇼핑센터 등의 매력물을 조기에 확보하고 도시개발 초기에는 업무·상업시설을 중심으로 교육·문화·의료 등 생활기반 시설을 집중 개발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놨다.

신수용 사장은 개회사에서 “도청신도시는 금강과 백제 등 충청의 역사·문화는 물론 충절과 선비정신으로 대표되는 충청정신이 투영되고 이를 통해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명품 신도시로 조성돼야 한다”며 “대전일보사는 도청신도시가 단지 개발사업이 아니라 200만 충남도민의 권익을 높이고 충남의 미래 발전축으로 육성돼야 한다는 명제에 대해서도 깊은 통찰과 탐색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회창 대표는 축사에서 “도청신도시와 홍성, 예산군의 공동 발전을 위해 이번 심포지엄을 개최해 주신 신수용 대전일보사 사장과곽정현 충청향우회 총재에게 감사드린다”며 “세종시 수정안이 도청신도시의 발전을 저해하는 상황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축사에 나선 고흥길 의장은 “도청신도시 국비 지원과 관련해 관계 부처와 신중한 협의를 통해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지원을 이끌어 내는 한편 심포지엄에서 도출된 좋은 결론도 충분히 수렴해 정책 등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박병석 의원은 “세종시와 충남도청 신도시는 당초 계획대로 진행돼야 한다”며 “이에 대한 정부의 정치적 입장과 방향이 제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인화 권한대행은 “도청신도시가 충남의 새로운 100년을 열어갈 성장엔진이 될 수 있도록 도민과 함께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나가겠다”고 강조했고 곽정현 총재는 “충청향우회에서 도청신도시가 200만 도민의 꿈이 영그는 곳으로 탄생할 수 있도록 모든 열정을 불어 넣겠다”고 약속했다.

심포지엄에 이어 진행된 6·2지방선거 충남지사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안희정 민주당 후보와 박상돈 자유선진당 후보는 각각 ‘대전·충남북을 연계하는 충청광역경제권의 배후 행정지원도시’와 ‘대전-세종시-천안과 3각축을 이루며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도시’를 각각 신도시 비전으로 제시했다.

또 국비 지원과 관련해 안희정 후보는 “경북도와 공조해 국비 지원을 이끌어 내는 한편 충남도청사와 부지 등을 정부가 매입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으며 박상돈 후보는 “도청이 전지원 특별법의 국비 지원에 대한 임의조항을 의무조항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일보, 2010-5-18, 1면]

## 충발연, 충남 청양 '칠갑산' 산행

- 5월 28일, 조직 단합 및 심신 수련의 기회 마련



〈칠갑산 정상에서〉



〈칠갑산의 명물, 출렁다리〉



〈장곡사 밑 작은 계곡〉



〈장곡사의 모습〉



〈산행 중 잠시 휴식시간〉



〈산행 중 잠시 휴식시간〉



## 충남도,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체질 개선해야

— 총발연 워크숍- 농산어촌체험마을 운영 및 시설 보완, 전문인력 양성 제안



최근 건강과 여가를 중시하는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하듯 농어촌체험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는 가운데 충청남도에서도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해 ‘상부상조’라는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나왔다.

충남발전연구원 ‘도시-농촌교류 활성화 연구회’(회장 송두범 박사)는 5월 6일 오후 3시부터 ‘충남의 도시-농산어촌 교류, 어디까지 와 있나’라는 주제로 충청남도 및 공주시·청양군, 충남농업기술원, 농협충남지역본부 관계자, 그리고 연구회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워크숍을 가졌다.

총발연 송두범 박사는 기초발제에서 “충남도는 수도권과 대전권에 인접해 접근성이 양호할 뿐 아니라, 다양하고 독특한 농촌체험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도농교류를 위한 우수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면서도 “지역의 특성에 맞는 도농교류정책을 능동적으로 펼치지 못한다면 인구 감소 및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충남 농어촌의 소득향상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송 박사는 또 “농림수산식품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도농교류 5개년 계획(2010~2014)’으로 그간 개별적으로 추진되어 오던 교류사업을 ‘도농상생’이라는 비전하에 통합함으로써 향후 질적 향상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언급하면서 “충남도가 지난 2001년부터 조성해 온 농산어촌체험마을 139개소를 대상으로 지난해 체험마을 운영실태에 대한 문제점으로 지적된 시설운영의 미흡, 사계절체험프로그램 및 체험객 유치 노하우 부족, 고령화에 따른 운영인력의 부족, 생산 및 가공식품 판매 허가 취득의 어려움 등”을 해결해야 중앙정부 정책에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도농교류에 대한 보다 거시적 안목의 인식전환, 중앙정부의 정책에 대응한 지역의 통합계획 수립 및 지역의 독자적 특화 정책 마련, 공주시의 5도2촌주말도시팀과 같은 도농교류전담부서 설치, 우수 사례 벤치마킹, 평생교육원 등을 통한 도농교류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 개설 등”을 제안했다.

한편, 이번 워크숍에는 충남도 및 공주시·청양군, 농협충남지역본부 등의 도농교류정책 사례발표와 종합토론 등을 통해 도농교류 활성화 및 정책 활용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기도 했다.

## “상·하수도 통합운영 및 관리 워크숍 개최”

– 상·하수도 통합운영 및 관리를 위한 중앙정부 정책의 의견청취 기회 마련 –



충남발전연구원과 충청남도수질총량관리센터에서는 물 통합관리 방안의 일환으로 상·하수도 통합운영 및 관리 워크숍을 4월 22일 충남발전연구원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워크숍에는 발제자와 토론자를 포함하여 충청남도 및 16개 시·군 상하수도 담당자, 충남발전연구원 등 약 30명이 참석하였으며, 한국환경공단의 윤현식 차장의 “유역별 하수도 정비 및 관리방안”, 정진우 과장의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시범사업 기본계획”에 대한 주제발표와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주요내용은 환경부에서 추진 중인 유역별 하수도 정비와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등에 관한 정책 추진현황 및 사례 등에 관한 내용이었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대전대학교의 배병욱 교수는 “하수도 유역통합과 지방상수도 통합운영은 지자체사이의 의견조정, 관계법령의 개정이나 통합 등 선결과제가 많기 때문에 상위개념의 물 관리 통합이 먼저 검토되고, 연장선상에서 지자체간 시설 및 운영통합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국수자원공사 이두진 박사도 “시범사업 추진시 시설통합 뿐만 아니라

지자체간 자산, 조직, 인력통합의 바람직한 모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으며, 특히, 충청남도는 상·하수도 보급률이 낮고, 소규모 취락시설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통합과 분산을 적절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충청남도 수질관리과 신동현 과장은 “충청남도에서도 환경부의 정책추진에 있어 상·하수도 시설통합을 어떻게 추진해야 할지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으며, 상·하수도 보급률이 전국 최저수준인 충청남도에 대한 많은 지원과 관심을 부탁하였다. 한편, 예산군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상수도시설 위탁을 위한 표준계약서가 시급히 준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아울러 “상수도 통합의 범위(시설/업무/인력/조직)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 “지방상수도 운영관리 및 우수율 제고방안”워크숍 개최

– 한국수자원공사의 지방상수도 운영방안에 대한 정보교류의 기회 마련 –



충남발전연구원과 충청남도수질총량관리센터에서는 6월 11일 지방상수도 운영관리 및 우수율 제고방안 워크숍을 충남발전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워크숍에는 발제자를 포함하여 충청남도 및 16개 시·군 상수도 담당자, 충남발전연구원 등 약 30명이 참석하였으며, 한국수자원공사 충청지역본부 이효경 부장의 “지방상수도 권역별 운영관리방안”,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관리처 최종섭 과장의 “K-water의 우수율제고 및 관망관리”에 대한 주제발표와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주요내용은 충청남도의 권역별 운영관리 추진현황 및 계획과 지방상수도 위수탁 운영에 따른 관망운영관리 및 우수율제고 등에 관한 내용이었다. 시·군 상수도 담당자들은 환경부에서 추진중인 상수관망최적화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이와 관련된 열띤 질의와 토론을 벌였다. 특히, 시·군의 상수도시설을 한국수자원공사에 위수탁시 우수율에 대한 부분을 시·군의 현실여건을 반영하여 유동적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하자는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사업수행을 위한 예산지원 부분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 한편, 충남발전연구원 및 수질총량관리센터에서는 워크숍에서 논의된 자료를 바탕으로 지방상수도의 통합운영 및 우수율 제고를 위한 관련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며, 연구결과를 충청남도의 상수도 관련 정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공공디자인 선진지 견학 [창평 슬로시티]



지난 4월 29일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담당자를 대상으로 전남 창평 슬로시티 답사를 진행 하였다.

전남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슬로시티가 지정되었는데, 그 중의 한곳이 바로 담양군 창평이다. 본래 슬로시티는 공해 없는 자연 속에서 그 지역에 나는 음식을 먹고, 그 지역의 문화를 공유하며, 자유로운 옛날의 농경시대로 돌아가자는 느낌의 삶을 추구하는 국제운동. 1986년 패스트푸드에 반대해 시작된 여유식(슬로푸드) 운동의 정신을 확대하면서 만들어진 개념이다.

2002년 7월 이탈리아의 작은 도시 그레베의 시장이었던 파울로 사투르니니씨가 마을 사람들과 세계를 향해 느리게 살자고 호소하면서부터 유럽 곳곳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전세계 10개국 93개 도시가 가입되어 있는데, 아시아 지역은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전남 4곳(완도군 청산도, 신안군 증도, 담양군 창평면, 장흥군 유치면)과 예산군이 슬로시티 국제연맹의 실사를 거쳐 2007년 12월 1일 슬로시티로 지정되었다.

창평의 삼지천 마을은 동쪽의 월봉산, 남쪽의 국수봉이 마을 앞을 흐르는 개울천과 어울어져, 흡사 봉황이 날개를 뻗어 감싸 안으려는 형국이라 삼지천이라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특히 마을 안길에 오랜된 돌담장은 그 형태가 오랜 세월을 그대로 표현해 주고 있다. 돌과 흙으로

겹겹이 쌓은 담장은 마을을 따라 휘어 돌아가거나 좁아져 단순하거나 밋밋한 곳이 없다. 또 담장을 타고 넘는 담쟁이덩굴은 가을에 더욱 붉게 물들어 더욱 정겨움을 느끼게 한다. 또한 전통 한옥이 여러 채 있는데 그 중 전형적인 상류층 한옥의 형태를 보여주는 고재선 가옥은 방이 한 칸씩 딸린 대문채, 사랑채, 안채, 문간채로 나뉘며 지금은 사람이 살지 않고 있다.

그리고 창평에는 쌀엿, 한과, 국밥, 된장, 죽염 등의 전통음식이 유명하다. 죽염된장은 담양의 대표적인 슬로푸드로서 농림부 명인으로 지정된 기순도 된장 제조장이 있는데 제주고씨 집안의 10대 중부로 대대로 전승해온 방식으로 장을 담근다고 한다.

이번 답사를 통하여 타 지역의 문화와 지역의 특성을 살린 공공디자인에 접목한 문화체험 행사 및 사업등을 배우고 답습하였고, 우리 지역에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현장에서 이루어졌다.

앞으로도 배움과 학습을 통하여 우리지역의 공공디자인이 경쟁력을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실천과 노력을 다해 나가야 할 것이다.